

TRANS- HUMANITIES

Title : 규곤(閏壺)의 경계선을 넘어서다: 명대 여성 작가 서덕영에 대한
시론

A Study of Xu De Ying's Historical Criticism

Author(s) : 김지선 (KIM Ji-Seo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5 No. 2 (2012), pp. 91-120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규곤(閨壺)의 경계선을 넘어서다 - 명대 여성 작가 서덕영에 대한 시론

김지선

1. '틈새'로서의 서덕영

서덕영(徐德英)은 복건성(福建省) 보전(莆田) 사람으로 명말청초(明末清初)에 생존하였던 여성문인이다. 가정(嘉靖) 연간 휘주동지(徽州同知)를 지낸 서연룡(徐延龍)의 셋째 딸로 그의 언니 서옥영(徐玉英)과 서숙영(徐淑英) 모두 시문 창작에 뛰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국조규수정시집』(國朝閨秀正始集), 『열조시집』(列朝詩集), 『난해시집』(蘭陔詩集) 등에 의하면, 서덕영은 특히 역사에 매우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십일사(二十一史)에 대해 비평한 『비점이십일사』(批點二十一史)를 남긴 사실을 보더라도 서덕영이 역사에 대해 얼마나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 『비점이십일사』가 전해지지 않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여성문인이 이십일사에 대해 직접 평론을 남긴 것은 분명 이례적인 사례

가 아닐 수 없다.¹⁾

서덕영은 『혁제기』(革除紀), 『비점이십일사』 등의 작품집을 남겼다고 알려졌으나 전해지지 않고, 「양광론」(楊廣論), 「고경론」(高穎論), 「독이소」(讀離騷), 「독사」(讀史), 「의송문승상이강회제군격」(擬宋文丞相移江淮諸郡檄), 「혁제건문황제기」(革除建文皇帝紀) 등 현재 전해지는 몇몇 작품들은 대부분 역사를 비평하거나 역사 사건을 소재로 쓴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서덕영에게 역사는 문학 창작에 영감을 주는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대 후기부터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겠지만 확실히 역사를 창작의 동력으로 삼은 서덕영의 작품들은 명대 여성문학 전체에서 매우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명대 여성문인들의 작품은 대부분 규방 안에서 느끼는 섬세한 감성을 읊는 것이었고, 이는 주로 시(詩), 사(詞), 산곡(散曲), 부(賦) 등의 형식을 통해 표현되었다. 고문(古文) 창작이 상대적으로 빈곤하였던 여성문학에서 여성문인이 역사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직접 표출한다는 것은 당시로서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서덕영이 역사를 비평하는 데 무엇보다 중시하였던 점은 바로 ‘정통’과 ‘명분’에 있었다. 서덕영은 정통과 명분이라는 두 키워드를 통해 과거의 역사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시비를 따지고 이에 대해 비판하였다. 인륜을 무너뜨리고 도리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을 하였고 정통과 명분이 아니면 과감하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였다. 서덕영은

1) 서덕영 외에도 역사서를 읽고 느낀 감상을 시로 쓴 양소옥(梁小玉)의 『고금영사록』(古今咏史錄)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 작품집 역시 전해지지 않아 서문을 통해서만 내용을 짐작해볼 뿐이다. 양소옥은 서문에서 선과 악이 도치되고 충신과 간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현실에 대해 “하나하나 그 내면을 들추어 그 품격을 정했다.(一一摘其神情, 定其品格.)”라고 밝혔다. 역사에서 시 창작의 영감을 받은 것은 여성문학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로 남성들이 주도해온 역사에 대해 여성이 직접 평가하고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여성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명말청초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유민(遺民)으로서 느끼는 울분과 비분강개함을 과거 역사의 '정통'과 '명분'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풀어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서덕영은 결코 감성적으로 역사를 비평하지 않았다. 풍부하고 해박한 역사 지식에 토대를 두고 하나하나씩 근거를 들어가며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비평하였고, 기존의 학설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글로 밝혔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인물로 칭송되던 자들도 서덕영의 붓끝에서는 낱낱이 이면이 밝혀져 비겁한 인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고, 뛰어난 정치나 제도도 그 한계와 모순점이 파헤쳐지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과거의 인물과 사건들을 거침없이 비판하면서 은근히 남성에 대해 조롱하기도 하고, 도발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면서 때로 남성중심적 사회를 비틀어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서덕영은 독특한 창작 세계를 펼쳐나갔지만 그간 학계에서 서덕영과 그 작품들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명대 여성문학 연구에서 논의의 중심은 강남(江南) 여성문인의 문학 활동이나 문집 출판 등에 있었고, 여성문인 개별에 대한 논의의 경우, 대부분 심의수(沈宜修)나 왕단숙(王端淑) 등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서덕영에 대한 연구는 중국문학사 뿐 아니라 중국여성문학 등의 연구에서 간과되고 소외되어왔던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어 현실 정치를 빗대어 비판하기도 하고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한계를 세심하게 밝혀내었던 서덕영은 그야말로 그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명대 문학의 '틈새'인 것이다.

이에 본고 제2장에서는 서덕영의 독창적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명대 여성 산문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배경하에 제3장에서는 서덕영의 산문비평이 명대 여성문학에서 얼마나 독특한 풍격을 이루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2. 규방 안에 갇힌 연꽃들 — 명대 여성 산문의 세계

중국여성문학사에서 명대는 가히 획기적인 시대라 할 만하다. 한대(漢代)의 반소(班昭)와 채염(蔡琰), 진대(晉代)의 사도온(謝道韞), 당대(唐代)의 설도(薛濤), 송대(宋代)의 이청조(李清照), 주숙진(朱淑眞) 등 각 시대별로 일세를 풍미한 여성문인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들 여성 문인의 창작 활동은 개인적인 상황에만 머무르며 집체적인 현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명대에 이르러 여성문학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명대 말기 강남을 중심으로 여성 문인 집단이 대거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가족단위로 시사(詩社)를 결성하여 서로 창작 활동을 독려하고 문학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였다.²⁾

오강(吳江)의 엽씨(葉氏), 심씨(沈氏), 동성(桐城)의 방씨(方氏), 산음(山陰)의 기씨(祁氏) 등의 명문가를 중심으로 여성문인 집단이 출현하였는데, 그들은 시로 창화(唱和)하며 마음을 주고받았고 편지로 문학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문집에 서문을 써주면서 여성 문인들 간의 공감대를 쌓아갔다. 이러한 현상은 명대 이전에는 거의 보기 드물었던 일로 이는 중국역사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즉 강남을 중심으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여성 교육의 기회도 점차 늘어났고, 출판업계도 매우 호황을 이루면서 독서계의 관심이 여성문인들의 작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른바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다(女子無才便是德)”라고 하였던 전통적인 여성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명대에 여성문인 집단이 출현하였다는 이 사실만으로 명대에

2) 『명사총』(明詞綜)에 수록된 여성문인 총 84명 중 강남 출신 여성은 57명, 『명시총』(明詩綜)에 수록된 여성문인 총 79명 중 강남 출신 여성은 42명, 『열조시집소전』(列朝詩集小傳)에 수록된 명대 여성문인 총 117명 중 강남 출신 여성은 57명으로 강남 출신 여성문인들이 매우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덜 하였고 여성들의 생활이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명대 여성의 교육은 일부 명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더욱이 여성 교육은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성취감을 얻기 위한 것에 있지 않았다.³⁾ 명대 여성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어머니, 집안을 현명하게 다스리고 남편과 대화가 통하는 익우(益友)로서의 아내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孫小力, 蔡維友 145). 이 때문에 여성 교육은 가문의 명망과 위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는 명대 여성 문인들의 작품 경향과 그대로 연결된다. 명대 여성문학 전체를 두고 볼 때, 규방에서 지내며 느끼는 섬세한 감성이나 외로움, 회한 등을 읊은 시, 사, 부, 산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문(古文)을 거의 짓지 않았던 것은 명대 여성문학과 교육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더욱이 산문 내에서도 여성문인들끼리 안부를 묻거나 일상의 일을 부탁하면서 쓴 서간문, 서정적 감성을 드러낸 부(賦),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제문(祭文)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역사나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펼치는 고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⁴⁾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문인이 자신의 시집을 내면서 서문을 직접 쓰거나, 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의 시집에 서문을 써주는 것은 실로 파격적인 일이었다. 여성문인이 쓴 작품집에 남성문인이 아닌 여

3) 명대에는 평민 여성과 기녀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여성교육은 무엇보다 귀족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전통적 유교에서 지향하는 ‘부덕(婦德)’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었다. 趙崔莉, 『明代宦門閨秀教育述略』, 『遼寧大學學報』第36卷 第3期 (2008): 135.

4) 예컨대 왕수금(王秀琴)이 편집한 『역대명원문원간편』(歷代名媛文苑簡編)에는 명대 여성문인들이 쓴 산문 작품 총 31가지의 장리가 수록되었는데 그 중에서 서간문이 27편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문과 발문 총 19편, 부는 10편, 제문은 7편 등이 수록되어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려는 논의를 펼친 논(論)은 6편, 책을 읽고 쓴 감상문은 5편 등이 전해진다(4-62).

성문인이 서문(序文)이나 발문(跋文)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여성들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문인들은 이 작은 공간을 통해 문학에 대한 견해를 펼쳤고, 여성문학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기존의 문단에 대해 은근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또한 같은 여성문인으로서 높은 인격과 재주를 지닌 자를 흠모하고 칭송해주며 서로 아끼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성문인들은 창작 활동을 하면서도 늘 규방 밖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단순한 소일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애썼다. 육경자(陸卿子)는 「항란정(項蘭貞)의 『재운초』(裁雲草)에 서(序)를 쓰다」(題項淑裁雲草序)에서 여성의 임무는 규방 안의 일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다.

우리 여인네들은 술과 장을 담그고 요리를 하는 일에 힘써왔는데 이는 그것이 원래 우리의 직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이 나거나 재계 중이라 일이 없을 때 옛 여성문인들의 유풍(遺風)을 본받아 시를 짓곤 하였다.⁵⁾

이 외에도 심정전(沈靜專) 역시 『적적초』(適適草) 서문에서 “우리 같은 여인네들에게는 맛있는 장을 담그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에 문장을 쓰는 일은 진실로 규방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다.”⁶⁾라고 하였다. 이처럼 글을 쓰는 일에 대한 그들의 자세는 너무도 조심스럽다. 여성문인들은 애써 글을 짓는 일은 본업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집안 일이 한가할 때만 허락받는 소일거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저 몸을 굽히고 전전 궁궁하면서 창작에 대한 열정을 조용히 펼칠 뿐이었다. 또한 상정백(桑

5) 「題項淑裁雲草序」：“我輩酒漿烹飪是務，固其職也。病且戒無所事，則效往古女流遺風贍響而爲詩。”

6) 『適適草』「序」：“吾輩旨漿是任，筆墨之業，固非望于閨闈。”

貞白)은 『향림집』(香窟集)을 내면서 발문에서 창작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본래 상씨(桑氏) 가문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는 엄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날마다 여훈(女訓)과 열전(烈傳), 경사(經史)를 익혔다. 고급의 사적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한대의 반소와 채문희(蔡文姬), 진대의 소혜(蘇蕙), 송대의 주숙진, 명대의 주묘단(朱妙端)이 모두 재주가 남다르고 생각이 깊으며 그들의 비범하고 훌륭한 시가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깊이 흠모하여 그들이 남긴 시를 받들어 읊조리던 나머지,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였으나 생각만큼 잘 따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던 차에 남편에게 시 집가게 되었는데 남편은 본디 아름다운 시구 찾기에 심취해 있었기에 그 때부터 더욱 나를 복돋아주고 가르쳐주었다. 때때로 밝은 달이 하늘에 떠오르고 향기로운 꽃 그림자가 땅 위에 비치거나 비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 때면 침향(沈香)을 태우고 작설차를 끓여 두 사람은 무릎을 대고 앉아 읊조리면서 먹고 자는 것을 잊기도 하였다. 세월이 흘러 시가 대략 수 백 편이 모이자 이를 기록해 한 질로 엮었다. 규방의 부질없는 정감 같은 것은 거의 적지 않았으나 실로 규방의 문지방을 넘는 글은 아니다. 사랑하는 이는 이미 멀리 떠나 나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에 한 번 시집을 펼쳐 보지만 그저 탄식과 망연함이 원망스러울 뿐이다.⁷⁾

발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명대 규방의 풍경을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여성 교육은 따로 가정교사를 두어 전문적으로 시행했다

7) 『香窟集』 「自跋」 : “妾本桑林中女, 幼荷嚴母庭誨, 日究女訓烈傳經史. 以明古今, 方識漢有曹大家·中郎女, 晉有竇滔妻, 宋有朱淑眞, 明有朱靜菴, 俱各雋才巧思, 異句佳章行世. 心甚企慕, 捧誦之餘, 欲追芳躅, 慮難脗合. 茲適所天, 素耽佳句, 益慰熏陶有自. 時遇明月流天, 芳菲映地, 或風晨雨夕, 輒燒水沈, 烹雀舌, 促膝吟哦, 遂忘寢食. 歲久漫成下里數十百言, 錄成一帙. 少紀閨中漫致, 實非踰闕之言也. 佳人既遠, 比述爲難, 時一展卷, 徒憎歎惘耳.”

기보다 대부분 어머니가 맡았는데, 어려서부터 엄한 어머니로부터 여훈과 열전(烈傳), 경사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상정백의 표현에서 규방의 여성 교육은 자아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건 예교에 충실한 여성을 배양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정백은 결혼한 뒤로는 남편 주리정(周履靖)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문학 창작을 해왔고, 두 사람은 문학을 통해 서로 익우(益友)가 되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를 지을 수 있었지만 상정백은 스스로 규방 안이라는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하였다. “실로 규방의 문지방을 넘는 글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굽히며 애써 규방의 경계선을 긋고 그 안에 머물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명대에 이르러 여성문인들이 대거 출현하였고 시사(詩社) 결성과 함께 창작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은 분명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는 징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문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글을 쓰는 일에 대해 조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방맹식(方孟式)이 동생인 방중현(方仲賢)의 작품들을 모아 『청분각집』(淸芬閣集)을 내면서 쓴 서문에서 당시 여성들이 글을 짓는 일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내 여동생은 옥 같이 고상한 절개와 얼음 같이 깨끗한 인품을 지닌 데다 지혜롭고 영민했지만 자신의 재주를 뽐내지 않았다. 평소에 항상 하늘을 우러러 말하길 “여자들은 재주가 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슨 잘난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여동생은 이별과 근심, 원망, 아픔에 대한 글은 대충 지었다가도 대부분 태위 없애버렸으며, 어찌 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작품을 쓰더라도 방치한 채 기록하지 않으며 말단의 재주쯤으로 치부했다. 내가 살펴보니 여동생의 학식은 여자 박사궤주(博士祭酒)에 손색이 없으니 상하고금의 일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완성했다. 한번은 여동생이 우연히 부채에 쓴 글씨를

보여주었는데, 흡사 위부인(衛夫人)의 해서(楷書), 지영(智永)의 진서(眞書) 같아서 나는 그것을 보물처럼 받들었다. 그러나 여동생은 항상 이를 숨기며 하찮은 재주로 여겼다. 아, 내 여동생이여! 몸을 꾸미지 않고 재주를 드러내지 않은 그 뜻이 진실로 심원하구나!⁸⁾

방맹식은 방중현이 일찍이 과부가 되어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청분각집』을 판각하였고, 서문에서 그 인품과 덕행을 칭송하였는데 방맹식이 방중현을 높게 산 이유는 겸손함과 검소함에 있었다. 방맹식은 방중현의 재주가 박사재주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지만, 늘 자신의 재주를 숨기고 이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태도를 높이 사고 있다. 심지어 방중현은 “여자들은 재주가 없는 존재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쓴 글을 태워버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고약박(顧若璞)이 쓴 『규만음』(閨晩吟) 서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천성적으로 투박하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대부분 어리석고 졸렬한 이론들만 주장했기 때문에 규중 사람들은 늘 나를 비웃곤 했다. 하지만 부인과는 순위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 서로 막역하게 지냈다. 나는 불행하게도 일찍 과부가 되어서 삶이 순탄치 않았고 이 때문에 흐느끼며 탄식하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다. 부인 또한 동생이 재주를 품고서도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집안마저 쇠락해지는 꼴을 당하자, 가을바람이 휘장에 불어오고 봄 달이 난간에 휘영청 할 때마다 시를 지어 스스로를 위로하였는데, 이는 또한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 시가 추구하였던 풍취는 아름답고 머금은 정은 심원하였다. 나는 그저 뒤에서 눈만 멀뚱

8) 『淸芬閣集』「序」：“乃吾女弟玉節冰壺，加慧益敏，而不炫其才。居恒仰天曰：“女子無儀，吾何儀哉！”離憂怨痛之詞，草成多焚棄之，偶一繪施金相，競炙莊嚴，即沈閣弗錄，鄙爲末技。窺其學不減女博士祭酒，下上古今，亶亶成章。偶示扇頭，衛楷永眞，咸捧如寶。常諱之爲餘藝。嗟乎阿妹！墮體黜聰之意，固已遠矣。”

거리며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도 나와 의견을 나눌 때는 오히려 감추면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 작품집에서는 창화한 작품이 매우 적는데 이로써 부인이 중시하였던 바는 시로 위안을 삼은 것이었지 재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음을 족히 알 수 있다.⁹⁾

이 글은 고약박의 올케인 황홍(黃鴻)이 죽고 그의 자식들이 유작들을 모아 『규만음』을 내자 고약박이 써준 서문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황홍 역시 남편 고약군(顧若群)이 출세에 뜻을 이루지 못해 실의에 빠져 있을 때, 남편을 위로하고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를 썼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황홍이 자신의 재주를 감추며 창화하지 않았던 태도에 대해 고약박은 높이 칭송하였다. 그렇기에 명대에 재녀(才女)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인식이 일어났고 여성관에서도 개방적인 분위기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은 분명 매우 힘든 일이었다. 역시 고약박이 『규만음』 서문에서 내뱉진 이 한 마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에도 파고 든다.

시란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자가 시를 말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본래 시는 예의가 아닌 것을 삼가하고 예법은 집안 바깥에서 더욱 엄격한 법, 한 구절이라도 내뱉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나없이 꾸짖고 헐뜯었다.¹⁰⁾

9) 『閨晚吟』「序」: “余性樸寡諧, 持論多迂拙, 閨中人輒笑之. 與夫人相上下, 恒視而莫逆也. 余不幸不天, 所遭坎坷, 故不廢嗚唏歎息之聲. 夫人則以吾弟懷才不偶, 又值家中落, 當秋風披帷, 春月臨軒時, 聊詩以自解, 亦以解夫子也. 故其取致媚而含情遠. 余墮乎後矣. 然與余論議, 顧匿不自見. 編中酬和之什絕少, 此足以明其所重在彼不在此也.”

10) 『閨晚吟』「序」: “詩難言哉! 女子言詩, 抑又不易也. 自詩謹非儀, 禮嚴梱外, 一語之發, 人咸刺譏.”

그들에게 연꽃을 닮은 발은 너무도 힘겨웠고 규방 문지방의 턱은 여
전히 높았다. 그리하여 몇몇 여성문인들은 규방 안에 머물러야하는 자
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향해 울분과 회한을 토로하기 시작하였
다. 왕미(王微)는 『월관시』(樾館詩)서문에서 여성으로 살아가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였다.

장부로 태어나지 못해 천하를 마음껏 평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 집안만 섬기게 되었구나. 참선하면서 경전을 외우던 틈틈이 시를
 읊조렸다. 때로는 꽃과 비에 대한 감정을 풀어내기도 하였고 강과
 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탄식하며 일어나 뜻을 기탁한
 후에야 그쳤다. 망령되어 생각하노니, 인간 세상 봄에는 풀이요, 가
 을에는 낙엽이라 이런 것들을 엮어내면 시가 아닌 것이 없다. 시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안되는가?¹¹⁾

일상에서 느끼는 모든 소소한 감성들을 시로 표현하고 싶었던 왕미의
 강렬한 열망이 서문에 잘 나타나있다. 더욱이 “장부로 태어나지 못해 천
 하를 마음껏 평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한 집안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한 문장에서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 호방한 기상이 느
 껴진다. 왕미는 천하를 품속에 품고 싶은 포부가 있었으나 여성, 더욱이
 기녀의 신분이었기에 그저 내면의 욕망을 글로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왕미가 걱정적인 어조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계를 토로하며 문
 학 창작에 집착하였던 자신을 변호하였다면, 육경지는 「항란정의 『재운
 초』에 서를 쓰다」에서 더욱 대담한 발언을 한다. 육경지는 담담하게 여
 성들의 직분이 “술과 장을 만들고 요리를 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도 “시

11) 『樾館詩』「序」：“生非丈夫，不能掃除天下，猶事一室。參誦之餘，一言一詠，或散
懷花雨，或箋志水山。喟然而興，寄意而止。妄謂世間，春之在艸，秋之在葉，點綴
生成，無非詩也。詩如是，可言乎？不可言乎？”

란 본디 대장부들이 할 일이 아니고 실은 우리 여인네들이 해야 할 일이다.”¹²⁾라는 말을 던진다. 육경자는 이 문장의 의미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장이 시 장르의 특성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수성과의 연관성을 너무도 포착한 표현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시가 전통적으로 과거 시험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남성문인들을 향한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도발적인 선언이다.

여성문인들의 관심은 규방을 넘어 때로 사회, 국가의 문제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장부인(張夫人)에게 보내는 서간문」(與張夫人)에서 고약박은 큰 며느리 정효의(丁孝懿)가 아들 황찬(黃燦)에게 둔전제(屯田制)에 대한 견해를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을 장부인에게 말해주면서 둔전제에 대한 장부인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다. 여성문인이 남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둔전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인데다 고약박이 며느리의 일을 편지로 써서 둔전에 대한 장부인의 견해를 묻는 것도 흥미로운 상황이다. 정치와 사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성들 사이에서만 논쟁되는 주제가 아니었고, 여성들은 때로 남성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담한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며느리는 남편과의 술자리에서도 절대 집안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천하를 위한 기이한 계책을 내놓았는데, 혼자 둔전제가 무너진 것에 대해 생각하며 한스러워했습니다. 아울러 말하길, “변둔(邊屯)은 주변의 수요가 걱정되고 관둔(官屯)은 빈 말만 무성하고 실제적인 일이 적을까 걱정됩니다. 저와 당신이 온 힘을 다해 경영하여 금전 20만을 얻는다면 곧 조정에 상소를 올려 회하(淮河) 남쪽에 전지 만 무(畝)를 개간하게 해 달라고 주청합니다. 의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

12) 「題項淑裁雲草序」：“詩固非大丈夫職業，實我輩分內物也。”

다면 곡식 값이 싸져 군량도 충분할 것이고 군사들은 항상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 소금에 관한 정책을 써서 상인들을 불러들여 변방을 개간하게 한다면 군사를 늘리지 않고도 군량이 충분하게 될 것이니, 후대에 '민屯(民屯)으로 천자를 도운 것은 아마도 생각하건대 정효이라는 여성이 실로 처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칭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죽더라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비록 과장되긴 하지만 군사의 수를 감축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에 대해 거침없이 의론하였으니 부인에게서는 그 뜻이 실로 불멸의 것이라 생각지 않으십니까?¹³⁾

고약박의 며느리 정효의는 변屯(邊屯)과 관屯(官屯)의 한계점을 각기 지적하면서 민屯(民屯)이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어놓는다. 정효의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남편과 함께 상소를 올려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내보이며, 자신이 직접 천자를 도움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드러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대담함을 보인다. 사실 이러한 견해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차후의 문제이다. 여성이 정치와 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 바로 그 점에서 이 글은 의미심장하다.

더 나아가 명말청초라는 어지러운 현실에서 여성문인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하였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명나라의 몰락과 함께 죽음을 택한 여인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방 밖으로 뛰어나와 적극적으로 반청(反淸) 운동에 참여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유숙(劉淑)은 일찍이 과부가 되어 평생 수절하며 살았는데 명나라가 몰락할 위기에 처하자 가

13) 「與張夫人」：“與燦酒間，絕不語及家事。時爲天下畫奇計，而獨追恨於屯事之壞也。且曰：“邊屯則患傍擾，官屯則患空言鮮實事。妾與子戮力經營，倘得金錢二十萬，便當北闕上書，請淮南北間田墾萬畝。好義者引而伸之，則粟賤而餉足，兵宿飽矣。然後仍舉鹽筴，召商田塞下，如此則兵不增而餉自足，使後世稱曰：‘以民屯佑天子，蓋虞孝懿女實始爲之。’死且瞑目矣。”其言雖誇，然銷兵屯師，洒洒成議，其志良不磨，夫人許之否？”

산을 팔아 청나라 군대에 저항하는 일을 도왔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유숙의 글에서는 시대에 대한 비분강개, 나라에 대한 걱정, 삶과 죽음을 엄숙하게 바라보는 시선 등이 드러났다. 유숙은 『개산유집』(个山遺集)의 서문에서 글을 쓰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묘사하였다.

달과 하늘을 새기듯 글을 쓸 때는 좀 먹은 옛 문장을 빌리지 않았고, 묵을 펼쳐서 붓끝을 휘두를 때에도 공손대랑(公孫大娘)의 검술을 거들떠보지 않았다.¹⁴⁾

형식이나 꾸밈 등에 얽매이지 않고 거침없이 작품을 쓴 자신의 모습을 칼을 휘두르며 춤추는 공손대랑과 비교한 것에서 유숙의 호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혼란한 시대에 여성문인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유숙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슬퍼하며 우국(憂國)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그저 칠실(漆室)의 여인들처럼 나라 일을 걱정하는 슬픈 정조(情操)를 기탁할 뿐이다.”¹⁵⁾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명대 여성문인들이 글을 썼던 계기나 이유는 매우 다양하였지만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한계는 바로 규방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였다. 여성문인들은 문학을 통해 타인과 교류하고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그 범위 역시 대부분 같은 집안의 여성문인 혹은 남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저 내면의 울분이나 우울함을 풀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학 창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4) 『个山遺集』「序」: “鬪月削天, 不假蠹魚故紙. 墨陣管鋒, 弗窺公孫擊劍.”

15) 『个山遺集』「序」: “聊寄漆室之悲操耳.”

3. 규곤(閨壺)의 경계를 넘어 천하를 호령하다

— 서덕영의 역사 평론

서덕영의 생애는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 서덕영의 생애에서 불행은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덕영은 같은 고향 사람 징저(澄渚) 유씨(兪氏)에게 시집갔다. 『열조시집』에 의하면, 유씨는 귀주(貴州) 추정사(布政使) 유유이(兪維異)의 손자로 학문에는 전혀 뜻이 없는 일자무식의 사람이었다. 신혼 첫날, 옆에서 시중을 들던 유모가 신혼부부에게 시 대구를 짓고 잠자리에 들라고 농담을 하자 서덕영이 벼루를 가리키며 “흰 벼루개지 점점이 벼루 위로 떨어지니 주사(朱砂)를 가까이하면 붉어지고 묵을 가까이하면 검어지네.(點點楊花落硯池, 近朱者赤, 近墨者黑.)”라고 즉시 시구를 읊었다. 신랑 유씨가 부인의 시 짓는 능력에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못하자 서덕영은 남편을 비웃으며 “제비 쌍쌍이 주렴으로 날아드니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네.(雙雙燕子飛簾幔, 同聲相應, 同氣相求.)”라고 대련을 읊었다.

이 일로 서덕영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서덕영이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건디는 유일한 통로는 시문 창작이었다. 서덕영은 남편 유씨가 죽은 뒤에도 수절을 지키며 재가하지 않았지만 「도지부」(悼志賦)의 몇 구절에서 남편에 대한 서덕영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인이 아닌데 누가 따를 것이며 의가 아닌데 누가 펼칠 수 있으리!
곰과 물고기는 함께 얻기 어렵고 난초와 지초는 그 땅이 아니라 하여 향기를 바꾸지 않는다. 떠난 자는 이미 가버렸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리!¹⁶⁾

16) 「悼志賦」: “孰非仁而可蹈兮, 孰非義而可長。熊與魚之難得兮, 蘭芷不以非地而改芳, 往者既已矣, 余何爲可傷。”

인이 아니면 따를 수 없고 의가 아니면 펼칠 수 없다는 구절에서 서덕영의 강직함과 고결함이 드러난다. 서덕영은 생전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죽은 뒤 다른 사람에게 재가하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않았다. 『난해시집』, 『민서』(閩書), 『열조시집』 등의 기록에 의하면, 서덕영은 평생 시문 창작에 위안을 삼으면서 살았는데 『혁제기』, 『비점이십이사』 등의 작품집을 남겼으나 서덕영이 죽은 뒤 그 아들이 원고를 다 태워버렸다고 한다. 아들 역시 어머니의 창작 세계를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작품집 모두 불태워지고 겨우 『비점이십일사』, 「도지부」, 「양홍왕응처예찬」(梁鴻王凝妻詣贊), 「독이소」(讀離騷), 육조(六朝)와 수당(隋唐)의 역사에 대해 논한 산문 몇 편만 남았는데 청대 건륭 연간 포전 사람인 정왕신(鄭王臣)이 이를 거두어 판각하였다고 하나 『비점이십일사』도 현재 전해지지 않고 산문 몇 편만 흩어져 전해지고 있다.

앞서 「도지부」에서 엿볼 수 있는 바, 서덕영은 끈고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이러한 내면은 그의 글 전체에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난다. 「독이소」는 굴원(屈原)의 「이소」를 읽고 쓴 글로 서덕영은 「이소」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간결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속옥대문원』(續玉臺文苑)에 수록된 「독이소」의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소」, 「구장」(九章), 「구가」(九歌)에는 중복되거나 순서 없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 언뜻 보면 난잡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문장을 읊조리면서 음미하다보면 글자마다 아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모두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다. 슬픔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글이지 원래부터 문체를 꾸민 문장은 아니었다. 후세 작가들이 종종 생경하고 난삽함을 배워 문장을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이소」의 뜻을 잃은 것이다. 나는 항상 그 때 굴원이 처한 상황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

그 임금은 우매하였고 또 신하들은 아침만 하였다. 다른 나라로 가
자니 종신(宗臣)으로서 떠날 명분이 없었고, 묵묵히 숨어 지내려 하
여도 마음을 참을 수 없었으니 오직 죽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었다. 「섭강」(涉江), 「애영」(哀郢), 「석왕일」(惜往日) 등 여러
편을 보면 특히 간절함이 지극하니 애처로워 차마 읽을 수가 없다.
그 충의와 비분강개한 기세는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군자들의
말 중에 군신과 부자 관계가 되어 『춘추』(春秋)를 모르면 안 된
다는 말이 있지만 나는 「이소」에서 역시 이러한 느낌을 느끼게 된다.¹⁷⁾

우선 서원(徐媛)이나 양맹소(梁孟昭) 등 당시의 여성문인들이 추구하
였던 화려한 풍격이 아니라 담백하면서도 힘이 있는 문체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서덕영은 꾸미지 않는 문장으로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한 어
조로 굴원의 강직함과 충성심을 높이 칭송하였고, 당시 절박했던 굴원
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소」에 담겨진 정신보다 문체만 모방하려고 하였던 문인들에 대한 비
판이다. “후세 작가들이 종종 생경하고 난삽함을 배워 문장을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이로부터 「이소」의 정신이 사라진
것을 개탄하는 대목에서 기존의 문단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제기하는 작
자의 도발적인 내면을 느낄 수 있다.

서덕영이 어떤 계기로, 왜 그토록 역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서덕영의 몇몇 작품을 통해
볼 때, 서덕영은 규방 안의 풍경과 섬세한 감성을 읊는 것보다 규방 밖

17) 「讀離騷」: “「離騷」·「九章」·「九歌」, 或有重雜無次者, 乍觀之, 覺雜亂然。咏而味之, 字字不苟, 蓋皆出於忠君愛國之誠心。悲傷哀怨之不已者, 初非爲辭藻也。後世作者, 往往學爲蹇澁至不可讀, 而騷之意亡矣。予常考其時爲之處而不得也。彼以君昏, 而復以臣佞而諂。適他國也, 則宗臣無去義, 欲隱嘿則心不能忍, 唯死可以安耳。視其「涉江」·「哀郢」·「惜往日」諸篇, 尤爲切至, 慘不可讀。其忠義慷慨之氣, 足使人感動興起。君子有言, 爲人君臣父子不可不知春秋, 予於離騷亦然。”

의 일과 정치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았고 이를 글로써 드러내기를 좋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이 당시 명말청초라는 상황과 맞물려 시대를 개탄하고 정치를 비판하며 남성들이 지휘하는 세상을 조롱하는데까지 나아갔던 것이다. 서덕영은 문학을 통해 규곤(閨壺)의 경계선을 넘어서 천하를 호령하며 마음껏 세상을 달릴 수 있었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서덕영이 역사를 비평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부분은 ‘정통’과 ‘명분’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분명 명말청초라는 시대적 혼란을 겪으면서 느끼는 회한, 비분강개함과 무관하지 않다. 서덕영은 과거의 역사를 하나 하나 파헤치고 평가하면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은연중에 투영시키고 있다. 예컨대 『속옥대문원』에 수록된 「독사오수」(讀史五首) 중 첫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자(孔子)는 “노(魯)나라에서 지내는 교사(郊祀)와 체사(禘祀)는 예에 어긋났으니 주공(周公)의 가르침이 쇠하였구나!”고 하였다. 예는 명분을 바로잡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제후의 나라에서 이미 천자의 예를 행하였다. 계손씨(季孫氏)는 태산(泰山)으로 순행(巡幸)하여 경대부(卿大夫)로서 제후의 예에 어긋났으니 또 얼마나 괴이한 일인가!¹⁸⁾

서덕영은 ‘정통’과 ‘명분’이라는 두 키워드로 계손씨의 일을 평가하면서 “제후의 나라에서 천자의 예를 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계손씨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비정통의 청나라가 명분 없이 군사를 일으키고 명나라를 위협한 상황을 빗대는 것이다. 또한 서덕영은 정통과 명분이라는 기준으로 맹자에 대

18) 「讀史一」：“孔子曰，魯之郊禘，非禮也，周公其衰乎！禮莫大於正名分，諸侯已得行天子之禮矣。季氏旅於泰山，卿大夫之僭諸侯之禮也，又何怪乎！”

해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비판을 가한다. 「독사오수」 세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태백(李太伯)은 맹자(孟子)를 좋아하지 않아 자주 그를 비난하였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를 비난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맹자는 천하가 이익을 도모하는 때를 만나 홀로 간절하게 인의(仁義)를 주장하였으니 진실로 당시 유세하던 선비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강(盱江)의 뜻은 역시 그것이 처한 바가 있으니 반드시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주(周)나라는 천하가 함께 섬기는 주인으로 맹자는 일찍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의 위왕(僞王)들에게 정성스럽게 왕의 도리를 고하었으니 진실로 그의 말은 주나라 어디에 둘 수 있으리오! 만약 공자라면 분명 이렇지 않았을 것이지만 맹자는 여러 나라를 두루 방문하였고 끝내 때를 만나지 못하였는데도 후세 사람들은 그를 비굴하고 더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문중자(文中子)는 문제(文帝)에게 책략을 바쳤지만 후세 사람들은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호라! 고인(古人)의 언행을 평하는 데 어찌 타당함이 있을 수 있으리!¹⁹⁾

맹자는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가이자 정치가로 추앙되는 인물이지만 정통과 명분을 강조하였던 서덕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명분 없이 비정통의 길을 걸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서덕영은 오히려 맹자를 문중자의 상황과 대비시키며 후세 사람들이 맹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개탄하기까지 한다. 문중자는 수나라 사상이 왕통(王通)의 호로 왕통이 문제에게 『태평십이책』(太平十二策)을 상주한

19) 「讀史三」：“李太伯不喜孟子，多誹毀之，後世非之。予謂孟子當天下交利之時，獨惓惓以仁義爲說，固非當時遊說之士可比。而盱江之意，亦有所在，未必盡不是也。周，天下之共主也，孟子未嘗一至焉。乃勤勤於齊梁之僞王，告之以王者之道，信斯言也，其置周何地乎！若孔子必無是矣，然孟子歷聘列國而終不遇，後世不以爲卑汚。文中子獻策文帝，後世疵議之不置。嗚呼！豈尙論之當歟！”

일을 가리키는데, 서덕영은 이처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비교하고 기존의 역사 해석에서 볼 수 없었던 틈새를 찾아내어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와 함께 서덕영이 역사 인물을 평가하는 데 중시했던 주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직함에 있었다. 「독사오수」 중 네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대(唐代)의 현신들로 앞에는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 적인걸(狄仁傑)과 장간지(張柬之)가 있었고 뒤에는 요승(姚崇)과 송경(宋璟), 이덕유(李德裕)와 배탁(裴度)이 있었으나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 군신의 의리에는 모두 덕이 부족하여 부끄러워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던 자는 육지(陸贄)와 안진경(顏真卿)이었다. 그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말은 다 못하는 것이 없었다. 육지는 살신성인(殺身成仁)하여 목숨을 버리고 의를 따른 자이며 안진경은 명철보신(明哲保身)의 지략에서 회한이 남는다.²⁰⁾

방현령과 두여회는 당 태종(太宗)의 측근으로 활약하면서 정관(貞觀)의 치(治)에 공헌한 바가 큰 재상이었고, 적인걸은 측천무후(則天武后) 시기의 재상으로 정치를 쇄신하여 무주(武周)의 치를 이끈 인물이다. 장간지는 측천무후에게 양위(讓位)할 것을 압박해 중종(中宗)을 복위시키고 국호를 주(周)에서 다시 당으로 바꾸게 한 인물이었다고, 요승과 송경은 현종(玄宗) 때 정치를 잘한 재상들이었다. 또한 이덕유는 무종(武宗)의 신임을 받아 재상이 된 후 환관들을 배척하고 정치를 일신시켰고, 배도는 현종(憲宗) 시기의 재상으로 회서(淮西)에서 할거하였던 오원제

20) 「讀史四」: “唐賢臣前有房杜狄張, 後有姚宋李裴, 然出處之際, 君臣之義, 均有慚德矣. 其無愧者, 其陸敬輿乎, 顏魯公乎, 知無不言, 言無不盡. 宣公也, 殺身成仁, 舍生取義者. 文忠也, 然保身之智有遺恨矣.”

(吳元濟)를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

모두 역사적으로 훌륭한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지만 서덕영은 이들에게 덕이 부족하였고 부끄러워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육지와 안진경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였다. 육지는 덕종(德宗)에게 큰 신임을 받아 한림학사(翰林學士), 병부시랑(兵部侍郎) 등을 지냈으나 직언을 잘하여 덕종의 불만을 샀고, 안진경은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현종과 숙종(肅宗)의 신임을 받아 요직을 지냈지만 환관들과 권신들의 미움을 사 늘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서덕영이 이 두 사람을 높이 평가한 근거는 문장에서 매우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 바로 그들은 “이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고 말은 다 못하지 않는 것이 없는” 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서덕영은 또한 역사 인물을 평가하는 데 강직함과 굳건함 뿐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곧바로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과단성과 용맹함을 중시하였다. 「독사오수」 중 다섯 번째 문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 희종(僖宗) 때 왕권의 기강은 해이해졌고 반진(藩鎮)은 군사를 동원하여 함부로 날뛰었다. 모두 양고기 술을 씹어 먹을 심산만 하고 있는데 유독 이극용(李克用)만 신하의 절개를 잃지 않았으니 역시 빈 골짜기에 울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같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도적들이 왕조의 교체를 바라며 반란을 주도하였고 중간에는 강한 병사들을 믿고 왕의 자리를 요구하더니 끝내 황제는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위급함에 닥쳐 구원해주기를 바랬으나 소매를 떨치며 국란(國亂)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저 여러 사람들을 끌어안고 스스로 세력을 굳히기만 하였다. 역사에서는 당대의 유능한 신하였다고 하였지만 어찌 그것이 정말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가!²¹⁾

21) 「讀史五」：“唐僖宗之際，王綱解紐，藩鎮跋扈。皆有宋頤羊鼎之心，獨李克用不失臣節，亦空谷之足音。然始則寇斫代以倡亂，中則恃強兵以要君，終而君父西遷。危迫求救不能奮袂以赴國難，徒擁大眾以自封植，史爲唐能臣，其然豈其然乎！”

이극용은 당대 말의 장군으로 황소(黃巢)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워 세력을 얻었으나 주전충(朱全忠)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로 서덕영은 먼저 절개를 잃지 않는 이극용을 높이 사고 있다. 인용문에서 ‘반란을 주도한 도적’은 주전충을 가리키는데, 서덕영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 당대를 멸망하게 만든 주전충을 비판하면서도 시대적 위기에 용감하게 나서지 않고 자신의 세력만 굳히는 데 애쓴 이극용을 더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극용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비판은 사실 당시 시대적 위기를 맞아서도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사대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덕영의 역사 비평을 읽는 묘미는 「고경론」(高穎論)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서덕영은 신임을 지키는 강직함과 굳건함을 강조하였지만 그렇다고 융통성 없고 고집스러움을 중시하지는 않았다. 서덕영은 「고경론」에서 수(隋)나라의 정치가 고경의 행적들을 묘사하면서 수나라의 역사와 정치 등에 대해 두루 평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경의 처세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한 부분은 매우 흥미롭다.

갖가지 책략을 꾸며 천하를 평정하니 공훈과 명성은 이미 커지고 부귀 역시 극에 이르렀다. 고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힘을 합쳐 대업을 보좌한 자들은 모두 잇달아 죽임을 당하였다. 이때에는 오히려 어찌 해야겠는가? 그저 관직을 그만 두고 물러나 유유자적하게 산림에서 은거하면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뜻밖에 충애를 탐하고 봉록에 연연해하였으니 무지함이 이미 극에 달한 것이다. 이에 시기로 인한 엇갈림이 날로 더해갔으며 거듭 배척당하였으니 그 몸을 온전히 보전하는 일조차 끝이 나버렸다. 문제(文帝)의 신임을 받고도 비방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저 양광(楊廣)의 무리가 명을 거역했다고 화를 쌓고 눈을 흘기며 원망을 품고, 게다가 태자 양용(楊勇)과 한패가 되었음에라! 구구한 말로 변명하고 끝이 없는 욕심을 좇으려 하여도 어찌 구제될 수 있었겠는가!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아닌 일을 하고서 간언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군자는 때를 헤아려 입사(入仕)하고 조짐을 보며 일을 도모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어찌 아버지와 형을 죽이고 임금과 스승의 도를 책임질 수 있으며 예악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은 친족을 아끼지 않았으니 어찌 신하와 백성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피겠는가? 이때에는 녹봉을 거절하고 멀리 달아나 집에만 머물며 입을 꼭 닫고 재난을 피하려 하여도 오히려 피할 수 없어서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경은 아주 힘들게도 황제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간언하였으니 끝내 승냥이와 호랑이의 분노를 샀다. 처형됨으로써 대의를 밝히지도 못하고 목숨 잃고 행위가 바르지 못한 사람만 되고 말았다. 하물며 또 부귀에 빠져들었으니 몸이 그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겠는가? 논자들은 고경이 임기응변에 뛰어나 평탄할 때나 불안할 때나 늘 한결같았으나 불운을 만나서 잘못된 것이라고 애통해하였지만 거의 이른바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편다는 것이 될 말이나.”라는 것이다.²²⁾

고경은 북주(北周)가 북제(北齊)를 평정하였을 때 크게 활약하여 수(隋) 문제(文帝)의 측위와 함께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와 납언(納言)을 겸직하며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다. 수 문제의 장자인 태자 용(勇)이 물러나고, 남조(南朝) 진(陳)의 토벌에 활약한 둘째아들 광(廣)이 태자로 책봉되었는데 고경은 양광이 태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때부터 문제와 그 뒤를 이은 양제(楊帝)로부터 미움을 받아 면직되었고, 이

22) 「高頴論」: “運籌制策, 平定宇內, 勛名已隆, 富貴亦至, 與頴肩衡戮力以佐大業者, 皆接踵誅廢矣. 斯時也, 尙何爲哉! 引身而退, 優游林泉, 顧不偉哉! 而乃耽寵戀祿, 罔知已極. 於是猜阻日積, 薦被斥譴, 得全其軀, 可以已矣. 以文帝之信任, 猶不免於投杼之惑. 矧彼廣何人者, 蓄拒命之恚, 懷眚眚之忿, 重以太子勇之締媾哉! 而欲以區區之口舌, 以格無窮之欲心, 庸能濟乎! 適足以殺其軀耳, 然則可遂其非而不諫乎! 曰, 君子量時而入, 見幾而作. 焉有弑父與兄, 而可責以君師之道, 以禮樂治天下乎! 彼且不親其親, 又何有於臣民哉! 是時也, 辭祿遠遁, 杜門括囊, 以避其害, 猶懼其不免也. 其可蹇蹇以犯顏哉, 卒之觸豺虎之怒, 而身被刑戮者, 乃其不明大義, 失身匪人, 以取之也. 矧又陷溺富貴, 而以身徇之乎! 論者謂其達權濟變, 夷險不二, 而悲其遭逢之不幸, 殆所謂枉尋直尺而可爲典.”

후 양제의 사치스러움을 비방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서덕영은 고경이 겪어온 행적들을 세심하게 묘사하면서 처세의 특성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서덕영은 고경이 원래 재주가 뛰어나고 곧은 사람이었으나 황제의 총애와 절대 권력을 손에 넣으면서 잠시 변절하게 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보았고, 황제의 총애를 잃게 되었을 때 오히려 간언하다 죽음에 이르게 된 처세가 옳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부귀에 빠져들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 처세한 고경을 비판하면서, 역시 고경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피력하였다.

규방의 문지방을 넘어서서 남성중심적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였던 서덕영은 급기야 남성의 목소리를 빌어 천하를 호령하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속옥대문원』에 수록된 「의송문승상이강회계군격」(擬宋文丞相移江淮諸郡檄)은 명대 여성문학에서 가장 독특한 작품 중 하나로 남송(南宋) 문천상(文天祥)이 강회(江淮) 지역을 다니며 원(元) 나라에 용감하게 맞서기를 독려하면서 쓴 격문을 모방한 글이다. 여성 문인이 남성화자가 되어 위기의 시대에 다함께 떨치고 일어나자고 호소하는 작품은 중국여성문학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서덕영의 격문 외에도 명말 반청(反淸) 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전쟁에 참가하였던 여장군 진량옥(秦良玉)이 자신의 고향인 석주(石柱)를 지키자고 호소하며 쓴 「수석주격문」(守石柱檄文)이 전해진다.²³⁾ 여성이 혼란한 시대적 위기를 맞아 규방의 문지방을 벗어나 격정을 토로하고 현실을 분개하며 남성들만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염(景炎) 2년(1277) 모월 모일, 우승상(右丞相) 겸 지추밀원사

23) 전통 시기 여성이 격문을 쓴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역대 여성문인들의 산문을 수집한 왕수금의 『역대명원문원산편』에서 격문은 명대 말기 서덕영과 진량옥의 작품 두 편만 전해진다.

(知樞密院事) 문천상이 강회 여러 군에 격문으로 고한다. 무릇 중국의 은택이 아직도 넉넉하여 한 여단(旅團)으로도 나라를 일으킬 만하고 한 황실의 복은 아직 쇠하지 않아 남군(南軍)이 모두 가세하였다고 들었다. 하물며 백 년 동안 병사를 양성해왔으니 단 하루 만에 그 효험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충직한 신하는 당연히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강한 병사는 적과 함께 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덕은 하(夏), 은(殷), 주(周) 삼대에 건줄 만하여 은혜가 구주(九州)에 두루 젖어들었다. 태조(太祖)는 삼 척의 칼을 들어 올려 정(鼎)을 북쪽에 두셨고 고종(高宗)은 제위에 올라 남쪽에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셨다. 여러 황제들은 모두 뛰어난 군주였고 대대로 덕을 잃은 적이 없었다. 병기는 무기 창고 안에 감추어졌고 전쟁이 사라져 일어날 줄 몰랐다. 말은 화양동(華陽洞)으로 돌아가고 변경의 봉화불은 꺼져 사람들을 놀라게 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점점 오랑캐들이 별과 개미처럼 모여들더니 갑자기 제멋대로 올빼미처럼 날개를 펼쳐 위세를 부리고 돼지처럼 무모하게 뛰어드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관리와 병사들은 당황하였으며 산하의 반이 오랑캐 손에 넘어갔고 백성들은 이미 송나라 사람이 아니다. 홀연히 생각이 일어나니 거듭 눈물이 나고 북쪽을 돌아보니 더욱 슬퍼진다. 비록 금 술잔처럼 강건한 국토가 되기를 백년토록 바라는 염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찌 흠 기와처럼 한 번에 무너지는 왕조가 되겠는가! 지금 주상께서는 새롭게 대통을 이으셔서 화살로 요상한 기운을 쓸어내시고 제단을 세우시며 용맹한 병사들을 불러 모으셨다. 나라의 법식은 사방에서 안정되었고 작은 도끼와 큰 도끼를 들어 최고 사령관에게 내리심으로써 오랑캐를 징벌할 뜻을 밝히셨다.

무릇 나라의 신하된 자로서 적이 들보를 넘어와 칼을 잡고 창을 휘두르는 것을 차마 보겠는가! 모두 함께 충의 가득한 분노를 하였고 와신상담하여 군주의 원수를 잊지 말자고 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종족의 고래가 날뛰는 상황임에랴! 더욱이 다행스럽게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바람처럼 일어나 장일중(張日中)은 興化軍(興化軍)에

서 갑옷을 정비하였고 진자경(陳子敬)은 강서(江西)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유초(劉肖)는 우도(雩都)에서 병사들을 모집하였고 이불(李芾)은 담주(潭州)를 굳건히 막았다. 함께 사막의 오랑캐를 없앴고 이에 송나라의 천지를 깨끗하게 하였다. 무릇 너희 백성과 사직은 진실로 마땅히 하나의 덕과 마음을 가져야한다. 진영을 뚫고 나오는 위엄은 달리는 말보다 웅대해야하고 적을 쫓는 기세는 대나무를 자르는 것보다 빨라야한다. 새를 날아가게 하고 쥐를 놀라게 해야 하며 또 금수를 사냥하듯 적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 바라건대 봉록을 받겠다는 마음을 없애고 관(冠)을 뚫고 나오는 원한을 펼쳐내지 마라. 일이 만약 성공하게 된다면 이름은 천고에 드리워질 것이다. 오랑캐의 기세가 매우 성하게 일어나 나는 이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 적개심으로 공격을 이루어하니 오랑캐를 멸하지 않으면 어찌 나라가 있겠는가! 각자 온 몸을 내던지는 우의를 다하여 이로써 함께 맹세하고 모두 이 뜻을 알아야한다. 속히 군영의 문으로 달려와 삼가 호령을 듣도록 하라!²⁴⁾

여기에서 서덕영이 문천상의 목소리를 빌려온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서덕영은 송나라라는 명분을 통해 명나라의 명분을 말하고 싶었고, 남

24) 「擬宋文丞相移江淮諸郡檄」：“景炎二年月日，右丞相兼知樞密院事文天祥，檄告江淮諸郡等。蓋聞有夏之澤猶厚，一旅而可中興，漢家之祚未衰，南軍而皆左袒。況養士於百年，期效用於一日。忠臣當爲君授命，烈士不與賊俱生，我國家德配三代，惠渥九有。太祖提三尺，定鼎於北，高宗登五位，重興於南，諸帝悉是令君，列代並無失德。兵藏武庫，寢干戈而不試，馬歸華陽，息邊烽而無驚，蠢然蜂屯螻聚之虜，遽肆鴟張彘突之形。生靈塗炭，吏卒倉皇，山河半爲胡虜之有，億兆已非宋國之人。忽爾興思，重可涕也，睠焉北顧，更堪悲矣。雖無金甌百年之願，詎成土瓦一崩之朝！今主上新嗣大統，矢掃妖氛，築壇臺而拜猛士。式靖四方，提斧鉞以授元戎，用昭九伐。凡爲國之臣子，忍視賊之跳梁，仗劍揮戈。同發忠義之憤，臥薪嘗膽，勿亡君父之讐，況當異類之鯨奔！尤幸羣心之風起，張日中整興化之甲，陳子敬興江西之師，劉肖會兵雩都，李芾保障潭州，共除沙漠之驕子，載清皇宋之乾坤。凡爾有民有社，實宜一德一心，突陣之威，雄於翻花，摧敵之勢，捷於破竹，俾鳥散而鼠驚，若禽蒐而獸獮。庶盡食祿之心，少伸冲冠之恨。事若可就，名垂千古。玃汎孔熾我是亟，擬成敵愾之功，匈奴不滅何家爲。各效委身之誼，用告同盟，咸知此意，速赴轅門，拱聽號令。”

송이 끊임없이 금나라와 요나라로부터 압박을 받았던 상황으로 청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침략하는 현실을 빗대어 표현하려고 하였다. 서덕영은 또한 원나라 군대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전향을 포기하고 죽음을 택한 문천상을 부활시켜 그의 목소리를 통해 위기의 시대에 모두 떨치고 일어나기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한 설정 이면에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작자의 심정이 투영됨과 동시에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문인들에 대한 비난이 함께 깔려있다.

명말청초라는 격변기에 여성문인으로서 서덕영이 직접적으로 사회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서덕영은 역사 비평이라는 공간을 통해 규방의 경계선을 넘어 현실을 비판하고 시대의 아픔을 소리 높여 외치고자 하였다. 그 붓끝은 남성 문인들의 한계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기존의 정전(正典)에 부여된 권위에 끊임없이 회의를 제기하는 것을 향하고 있었다. 여성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당시에 서덕영의 이러한 몸짓은 거대담론의 권위를 뛰어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4. 새로 쓰는 중국문학사를 위하여

이상으로 명대 여성 산문의 전반적인 상황과 함께 서덕영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살펴보았다. 그간 명대 산문이라 하면 전후칠자(前後七子)나 당송파(唐宋派), 공안파(公安派), 소품문(小品文)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에서 여성문인들의 산문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명대에 여성문인은 문학 창작을 담당하고 이를

향유하였던 계층으로 분명히 존재하였고, 전 사회적으로 반항을 크게 일으키지는 못하였더라도 여성문인의 작품들은 여성문인 뿐 아니라 남성문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을 받는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명대 여성 산문은 중국의 여성문학 뿐 아니라 명대 산문, 더 나아가 중국문학사 전체에서 간과하고 스쳐지나온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명대 여성 산문은 문학적 가치는 물론이고, 사료로서의 가치도 높아 생활사, 풍속사 등의 연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묻혀있던 명대 여성문인들의 산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발굴, 수집하여 밝혀내는 작업은 기존의 중국학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영역을 다양하게 열어 보이고, 과거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명대 여성이라는 화두는 ‘탈권위’, ‘탈정전’, ‘탈경계’라는 도전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王秀琴. 『歷代名媛文苑簡編』. 北京: 商務印書館, 1947.
- 趙崔莉. 「明代宦門閨秀教育述略」. 『遼寧大學學報』第36卷第3期 (2008): 135.
- 張麗杰. 「明代編纂刊刻女性文集的選文標準及其目的」. 『社會科學輯刊』第187期 (2010): 197-199.
- 孫小力, 蔡維友. 「悍婦與益友—晚明江南婦女的家庭角色新變」. 『深圳大學學報』第24卷第6期 (2007): 145.
- 沈雪瑩. 「節與忠: 明遺民對明清之際江南女性殉節的書寫」. 『溫州大學學報』第22卷第2期 (2009): 203-205.
- 姜勝利. 「明遺民與清初明史學」. 『安徽大學學報』第27卷第1期 (2003): 156-157.

A Study of Xu De Ying's Historical Criticism

Kim, Ji-Seon
(Ewha Womans University)

In the history of Chinese women, the Ming Dynasty is a very important era. It was not until then that Chinese people changed their view to support education for women, and the number of educated women increased. In fact, there were a few outstanding individual female writers before the Ming Dynasty; however, in the Ming Dynasty, female writers corresponded with each other and created their own literary works through group activities. This was the reason why female social activities took place actively during the Ming Dynasty. However, the number of those women was still small, and the Ming Dynasty was an era when most women were repressed. Under such circumstances, Xu De Ying was a woman whose writing was distinctive from that of other female writers. She criticized male politics through her criticism of the past, and raised her voice to the world with no hesitation. She pushed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women's quarters, and we can discover her views on trans-boundaries throughout her works.

주제어: 서덕영(徐德英, *Xu De Ying*), 규곤(閨壺, inner quarters), 역사
비평(historical criticism), 여성(woman's education), 정통
(authenticity), 명분(justification)

논문제출일: 2012. 04. 10

심사완료일: 2012. 05. 05

게재확정일: 2012. 05. 10